국방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여론조사…10명 중 6명 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8513?sid=102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해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집계됐다.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들은 절반을 넘는 58.7%로 나타났다. 반대한 이는 37.7%였다.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지민, 전 세계 사로잡은 '천상 아이돌'.. 팬심 사르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8/0003088080?sid=106

방탄소년단 지민, 전 세계 사로잡은 '천상 아이돌'.. 팬심 사르르♥방탄소년단(BTS) 지민이 팬사랑꾼 면모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 지민은 지난 18일 활짝 웃는 이모지와 함께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단독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1시간가량 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지민은 트렌디한 프린팅 티셔츠에 노메이크업의 앳된 모습으로 등장해 반가운 인사를 나눈 뒤 팬들이 새롭게 변신한 펌 헤어스타일을 알아보자 "여러분들 만나러 오니까 머리하고 지금 바로 왔다"라며 방송 시작부터 팬심을 강타했다.   
방탄소년단 지민, 전 세계 사로잡은 '천상 아이돌'.. 팬심 사르르♥현재 작업 중에 있는 솔로 앨범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을 계속해보고 있는 중"이라며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솔로 앨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또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이고 싶어서 외적인 모습들이 천천히 나이 들어가고 싶다. 어쨌든 아이돌이고 계속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며 "여러분들에게 춤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도 했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아이돌로서의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안겼다.   
방탄소년단 지민, 전 세계 사로잡은 '천상 아이돌'.. 팬심 사르르♥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며 다 같이 모여서 '방구석 수다' 느낌으로 팬들과 얼굴 보고 대화하면 좋겠다던 지민은 아쉽지만 실시간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위버스 라이브 방송으로라도 찾아오겠다며 다음 주를 기약하고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을 마무리했다.지민의 단독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트위터에는 'Jiminie', 'Jimins', 'PARK JIMIN', 'JIMIN LIVE' 등의 키워드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에 등극, 이외에도 'HIS SO CUTE', 'WEVERSE' 등이 트렌딩됐으며 키워드 'JIMIN JIMIN' 단독 74만 7000 이상 언급량을 나타내며 SNS를 뜨겁게 달궜다.팬들은 ''역시 프로페셔널한 천상 아이돌'', ''항상 이자리에서 너의 모든 것을 응원해'', ''앨범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우리 지민이 약속하면 꼭 지키는데 다음 주에도 만난다니 벌써 설렘", ''지민 오빠의 팬 사랑은 언제나 감동이에요'' 등의 댓글로 지민을 향한 애정을 표현했다. 문완식 기자(munwansik@mt.co.kr)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아직도 딴따라 타령인가[손남원의 연예산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9/0004701195?sid=106

[OSEN=손남원 기자] ‘딴따라’는 연예인을 싸잡아 낮춰 부르는 말이다. 이삼십년전까지는 흔히 쓰였다. 당시에도 국민배우, 국민가수가 있었지만 그냥저냥 인기인 영역에 머물렀다. 앞에서 추켜세우고 뒤에선 손가락질하는 선망 직업의 대명사 아니었나 싶다.간혹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고 정계 진출하는 중견 또는 원로 연예인도 각 정당의 얼굴마담 이미지가 더 강했던 시절이다. 오죽하면 미녀 스타들의 단골 연애 상대 1순위가 재미교포 사업가였고 몇몇은 재벌가 입성으로 꿈을 이뤘다 했을까.지금은 서기 2022년. 연예인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세상이다. 그만큼 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다는 방증이다. 더이상 국내용 엔터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무대로 진출한지 오래다. 도쿄나 홍콩 등 아시아권 영화 및 가요제 수상 소식에 온 국민이 환호한 걸 MZ 세대는 ‘아실랑가요?’ 지금은 칸국제영화제, 아카데미, 에미상, 빌보드 1위, 그래미어워즈 트로피를 마치 ‘도시어부’처럼 낚아오는 중이다.이수만 양현석 박진영 방시혁(나이 순) 등 4대 가요기획사 수장들의 재산은 재계 톱 클래스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구촌 대중음악의 판도를 뒤흔드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키운 특급 아이돌 스타 한 명 한 명은 각자 수출 100억불 금자탑을 쌓는 대한민국 경제의 일등공신으로 활약중이다.배우쪽도 마찬가지.’오징어게임’ 이정재가 재벌가 여인과 사귄다고 그에게 ‘봉’잡았다는 시샘의 눈길은 이제 없다. 오히려 ‘그 분이 횡재하신 건 아닌가요?”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스타 감독과 배우들은 은막의 장인이고 예술가로서 대접받는 위치에 자리매김했기 때문. 성공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져가는 계층 이동 공식이 연예계에 성립한 셈이다. 최근 연예인간의 혼인이 부쩍 늘어나는 풍속도가 이너서클의 영역 확장으로 느껴질 정도니까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얘기를 하고자 돌고 돌아왔다. K팝으로 세계에 국위를 선양중인 아이돌 그룹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전광판에 대한민국 홍보 광고를 365일 튼다한들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10분 영상물 효과에도 못미칠 정도다. 그런 방탄이병역의 의무를 질 나이가 됐고 수 년전부터 특례 대상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 조항에는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병역관련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방탄에 관한한 정가와 공직, 언론에서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는 중이다. 아직도 연예인이라 쓰고 ‘딴따라’로 읽는 꼰대분들이 결정권자인 모양이다.병역법 시행령’ 68조의11에 따르면 예술 체육 분야 특기가 있는 사람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래식과 바둑 등 여러 분야의 젊은 피들이 대체복무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그럼에도 방탄의 이 조항 적용에는 '논란' '예외' '특혜'란 수식어가 줄줄이 붙는다. 도대체 왜?방탄소년단의 활동은 국위 선양보다 영리활동 위주라는 희한한 논리의 태클도 있다. 명인전 기사도, 쇼팽 콩쿠르 출신 피아니스트도 프로의 무대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챙깁니다. 뜬금없는 비유지만 피카소도 가난한 화가는 아니었굽쇼. 방탄소년단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었다고 국위선양이 아니라는 건가. 객관성이 부족하다? 세계 팝시장 인기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빌보드 차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그 공정함 범용성으로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방탄 병역 논란의 핵심인 객관적 기준과 형평성 문제에서 기자는 오히려 (딴따라에 대한)차별과 편견을 절감하고 있다. 사상최초의 아시아, 한국 가수의 빌보드 1위가 거저 얻어지는 할인 쿠폰인가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들에게 싸이와 방탄, 블랙핑크는 버블껌에 불과한거죠? 심지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들의 병역특례를 인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까지 나왔다.  ‘딴따라’ 인식을 머리에서 지우지 않는한, 방탄의 병역특례에 관한한 대한민국에 진정한 공정성은 존재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mcgwire@osen.co.kr

방탄소년단 진·RM 먹방 힐링, 서울 매력 세계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1775?sid=103

2017년 “이모!”로 시작된 서울자랑6년째 서울여행 영상, 글로벌 공개‘미식의 밤’을 시작으로 매주 1편씩미식·술잔정담 30시간만에 1천만뷰도쿄 등 글로벌 도시 옥외매체 활용CNN, BBC 등 글로벌 매체에도 송출  
  
  
  
방탄소년단(BTS) 리더 RM과 맏형 진이 서울의 매력을 지구촌에 전파하는 일에 나섰다. 시리즈의 첫 영상물은 먹거리였다.  
  
  
  
서울홍보대사를 처음 맡던 2017년 맏형 진이 “이모!”를 애절하게 부르는 모습.[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모~!”5년전 방탄소년단(BTS)이 서울관광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하던 때, 이들의 홍보활동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먹거리를 즐기면서 담소하는 모습, 너무 즐거워하는 BTS스러운 재잘거림이 넘치고 불판·석쇠·냄비 위를 난무하는 14개의 젓가락 소리 요란했다.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는 순간, 맏형 진의 우렁찬 외침이 들린다.진은 몇 일 굶은 듯한 동생들이 먹을 고기가 또 바닥나자, 큰 소리로 맛집 주인장 아주머니를 친근하면서도 우렁차게 불렀다. 몇 인분 더 달라는 것이었다.촬영이니 덜 먹을 만도 한데, 맛있는 요리 앞에서 열심히 먹는 7인의 멤버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흔한 분량뽑기 영상 보다 사람들의 도시의 매력을 즐기는 모습이 더욱 높은 체감도로 지구촌에 송출됐다.지난해 막내 정국은 서울의 강점을 묻는 RM의 질문에 “서울은 BT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은 적이 있고, “하..내가 준비했던 멘트였는데..”라고 아쉬워하던 지민은 “서울과 함께 나이 먹어 가는게 좋네요”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관광 홍보대사로서 7인 멤버들끼리 가진 대담. 정국의 멋진 멘트에 반응하는 옆 자리 제이홉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의리의 석진이 리더인 RM과 함께 방탄소년단을 대표해, 6년차 서울 자랑에, 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비짓서울TV를 통해 먹거리를 필두로 2022년 서울관광 홍보영상 본편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18일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먹방을 하며 나누는 두 고참의 정담은 색다른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홍보영상인데 공개 30시간만에 1000만뷰에 도달했다.앞서 지난 2일 공개된 방탄소년단 RM과 진의 서울관광 홍보 티저영상은 공개 2주일 만에 1억 60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17년 처음 서울시 명예 관광 홍보대사로 선정된 이후 6년 연속 방탄소년단이 해마다 출연하고 있는 서울 공식 홍보영상은 서울과 방탄소년단의 매력에 매년 다른 콘셉트와 메시지를 더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왔다.방탄소년단의 영상은 매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가 등장해 코로나19 상황속에도 역동적인 서울을 그려내는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였고, 3억7000만회의 영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의 영상은 RM과 진, 두 멤버가 서울의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서울의 세 가지 매력(미식, 힐링, 인생샷)을 풀어내며, 두 멤버의 내러티브를 통해 영상의 메시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그동안의 영상들이 음악과 함께 역동적인 서울을 담았다면, 올해는 서울의 진짜 매력이 발산되는 장소와 그곳에 스며들어 그 매력을 즐기는 사람에 집중했다.  
  
  
  
서울 매력을 즐기는 사람들에 집중한 올해 서울관광 글로벌 홍보 영상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기보다 ‘서울 로컬 스타일’을 체험하고 즐기고자 하는 여행 트렌드를 고려했다. 여기에 RM과 진의 소탈하고 편안한 연기 덕분에 기획 의도가 잘 표현됐다는 제작팀의 후문이다.첫 번째로 선보여 30시간만에 10,000,000 조회수에 도달한 ‘미식의 밤(deliciouSeoul)’ 편은 서울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서울의 식당을 경험해 보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특히 두 멤버의 식사 장면에는 친구들끼리 맛집에서 나누는 장난 가득한 대화가 담겼는데, 둘의 현장 애드리브로 완성된 씬으로 영상의 재미를 더한다.‘미식의 밤’ 편은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즐기는 한강 드라이브, 밤에도 밝게 불을 켠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익숙하게 들어간 식당에서 손을 들고 스스럼없이 주문하는 모습이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서울 감성’을 자아낸다.RM, 진과 함께한 서울관광 홍보영상은 오는 23일, 30일에 힐링스팟 편, 인생샷 편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공개되는 영상마다 주어지는 문제에 답을 다는 댓글 이벤트도 진행돼 영상과 서울 여행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영상 공개에 맞춰, 일본 및 동남아 주요 7개 도시에서의 대형 옥외광고 등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서울관광 홍보에 나선다. 방탄소년단의 홍보영상과 서울의 ‘MY SOUL SEOUL’ 슬로건이 9월부터 11월까지 2~4주간 송출된다.각종 조사에서 해외여행 및 방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집행한다. 세부적으로 일본 도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싱가포르,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 주목도 높은 도심 대형 전광판을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해당 기간에는 옥외광고 송출 현장의 인증샷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19일 이후 비짓서울의 인스타그램 등 서울관광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 외에도 CNN, BBC, CNA(채널뉴스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미디어 TV채널을 통해 ‘서울관광’ 홍보에 나선다. 신뢰도와 주목도가 높은 뉴스 채널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 일본의 국가에 광고 형태로 송출된다.소셜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광고와 대형 옥외광고 캠페인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TV 채널 노출을 병행하여 홍보 시너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서울관광재단 김은미 글로벌마케팅팀장은 “그동안 빠른 템포의 음악과 화려한 화면 전환을 통해 역동적인 서울을 조명했다면, 올해는 두 멤버의 테마별 영상을 통해 편안하고도 트렌디한 매력이 넘치는 서울, 방탄소년단이 사랑하는 서울을 홍보하고자 했다”면서,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옥외광고, 글로벌 TV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의 여행을 계획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서울을 첫 번째 목적지로 떠올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러軍 방탄헬멧 맞나? 주먹 한방에 움푹..발로 밟자 빠지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00032?sid=104

우크라이나군 SNS 영상 캡처[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중인 러시아군의 부실한 보급물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먹질과 박치기로 속절 없이 부서져 '유리 헬멧' 같은 러시아군 방탄헬멧 영상이 공개됐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한 병사가 러시아군 방탄헬멧에 서너차례 주먹질을 하자 주먹질을 할 때마다 헬멧이 찌그러지면서 부서지는 영상을 올렸다. 또 박치기를 하자 주먹질을 했을 때처럼 헬멧이 움푹 파이며 찌그러들었다. 영상에 등장한 러시아군 방탄헬멧은 6B47형으로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러시아군의 부실한 헬멧과 구급상자 등 조악한 보급 장비들이 SNS 상에서 화제가 됐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 캐나다인은 러시아군의 헬멧을 발로 밟자 쉽게 부서지는 영상을 공유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 2명이 주운 러시아군 헬멧의 덮개를 벗기자 총탄 또는 포탄의 파편 등에 찢긴 자국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러시아(왼쪽)와 우크라이나(오른쪽) 군인들에게 지급된 구급 상자 모습. (출처 : 트위터 갈무리) 2022.05.03.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구급상자의 경우도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크게 조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구급상자에는 가위와 기도 삽관 튜브 등이 각각 포장된 채 들어있었지만 러시아 병사의 구급상자에는 지혈대와 사용설명서 정도만 들어 있었다. 러시아군 병사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해당 사진과 함께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쇼이구(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남겼다.

방탄소년단 진, '안경과 잘어울리는 K팝 최고 외모 아이돌' 1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2/0000570240?sid=106

[텐아시아=김순신 기자]   
방탄소년단(BTS) 진이 '안경과 잘어울리는 K팝 최고 외모 아이돌' 1위를 차지하며 미의 남신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진은 해외 투표 사이트 샤이닝 어워즈(Shining Awards)에서 9월 15일까지 진행된 '안경과 잘어울리는 K팝 최고 외모 아이돌'(Best Looking Kpop Idol With Glasses) 투표에서 1위에 올랐다.   
진은 4만 672표를 획득, 48.70%의 높은 득표율로 우승하며 최고의 미모와 극강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했다.절로 감탄이 나올만큼 아름답고 작은 얼굴, 타고난 피지컬 등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진은 다양한 스타일의 안경을 착용하며 팔색조 매력으로 팬들을 감탄하게 했다.진은 레드 카펫 행사에서도 수트와 안경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패션을 완성했으며, 여러 콘셉트 화보에서도 안경 패션으로 환상적인 모델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에서 진은 넥타이를 맨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은행원, 교복 차림의 스마트하고 착실한 모범생, 깔끔한 셔츠 차림의 지적인 교사, 한복 차림의 조선시대 관상가 등 에피소드 콘셉트에 맞게 안경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무한 매력을 발산했다.세계 최고 그룹의 비주얼 센터로서 맨 얼굴을 보이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진은 평소 민낯에 자주 안경을 착용, 청순하고 내추럴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세기의 미남'임을 증명했다.김순신 텐아시아 기자 soonsin2@tenasia.co.kr

방탄소년단(BTS) 진, 상견례 프리패스 아이돌 투표 1위 등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1/0001501849?sid=106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방탄소년단(BTS) 진이 '상견례 프리패스 아이돌' 1위에 등극했다.방탄소년단 진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이돌 챔프(IDOLCHAMP)에서 진행된 '추석에 부모님께 소개 드리고 싶은 상견례 프리패스 아이돌은?' 설문에서 45.0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투표 결과는 진의 남다른 비주얼과 인기를 실감케 한다.   
진은 눈부신 미모뿐 아니라 선한 인상, 착실함, 타고난 센스, 예의가 늘 몸에 배어있는 모습으로 ‘부모님께 소개 드리고 싶은 상견례 프리패스 아이돌’임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그가 속한 그룹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를 개최한다.사진 = 아이돌 챔프-방탄소년단 진-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뷔, 눈부신 미모 '천상계 비주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8/0003088081?sid=106

방탄소년단 뷔, 눈부신 미모 '천상계 비주얼'방탄소년단(BTS) 뷔가 환상적인 남신 미모로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동 중인 삼성 모바일은 15일 공식 SNS 계정에 'Wanna match your Galaxy to your lifestyle?' 영상을 공개했다. 갤럭시의 장점 및 사용 소감 등을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뷔는 블랙 펌 헤어스타일에 화이트 셔츠와 워싱 데님 느낌의 핑크 자켓을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상계 비주얼로 한눈에 시선을 강탈했다. 정면, 측면 어디를 비춰도 정성을 다해 깎아놓은 조각상 같이 초현실적인 미모와 잔잔하고 듣기 좋은 실키 저음 보이스는 인터뷰 내내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영상에 대한 집중력을 높였다.   
방탄소년단 뷔, 눈부신 미모 '천상계 비주얼'"갤럭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던 좋은 추억이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뷔는 "하와이 여행 때 밤하늘을 프로 모드로 하고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갤럭시는 역시 카메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뷔는 작년 12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하와이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운치 있는 사진 한 장을 방탄소년단 공식 SNS 계정에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뷔는 "Hundreds of millions of stars(It's not photoshopped"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팬들에게 공유, 기억에 깊이 남는 자신의 좋은 추억을 팬들과 함께 하려는 따뜻하고 진솔한 팬사랑이 전해지며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방탄소년단 뷔, 눈부신 미모 '천상계 비주얼'이어서 뷔는 "My name is V. 삼성 보고있나"라고 광고주에게 깨알 어필하는 유쾌하고 재치있는 글을 올려 웃음을 안겨주면서 제품을 한번 더 각인 시키는 영리한 방법으로 광고계 블루칩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뷔가 인터뷰를 통해 다시 펼친건 한 장의 사진이지만 팬들이 확인한 건 소중한 모든 순간을 팬들과 공유하는, 팬들을 향한 뷔의 깊은 진심이었다.문완식 기자(munwansik@mt.co.kr)

방탄소년단 진, 스마트&스타일리시 스타 1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8/0003088067?sid=106

방탄소년단 진, 스마트&스타일리시 스타 1위방탄소년단(BTS) 진이 스마트하고 스타일리시한 스타 1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다.진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익사이팅 디시에서 진행된 "'애플워치' 광고에 어울리는 스마트하고 스타일리시한 스타는?"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 진, 스마트&스타일리시 스타 1위진은 총 투표수 4888표 중 3696표를 획득, 75.6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진의 매력으로는 '멋있다'가 61%의 지지율로 1위에 꼽혔다. 이어 '스마트' 22%, '명석하다' 6%, '시크한' 5%, '이지적이다' 와 '지적이다' 3% 순이었다.   
방탄소년단 진, 스마트&스타일리시 스타 1위진은 앞서 진행된 9월 1주 '예일 후드티에 어울리는 '트렌디한' 매력의 스타는?' 설문에서 1위에 올라 뜨거운 관심을 증명한 바 있다.진은 익사이팅 디시에서 진행한 다수의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마이셀럽스가 뽑은 '6월 이달의 아티스트', '7월 이달의 아티스트'에 선정돼 두 달 연속 왕좌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기를 빛냈다. 문완식 기자(munwansik@mt.co.kr)

[인터뷰] 정진석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정기국회 전쟁터 만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53405?sid=1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법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엄연히 사법적인 영역에서 다뤄질 일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6일 국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에서 국민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와 17일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아서 감옥에 갔느냐”고 강조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직격한 것이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감사완박법까지 이른바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일방 강행처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협박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동원돼서 생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당한 이 전 대표가 징계 기간 근신하지 않고 파상공세를 당에 퍼붓고 있다”며 “한 손으론 당원모집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당을 흔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가 비대위의 우선과제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 스케줄이 제시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중요한 것은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민주당에 민생과 정쟁을 분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정치권 뉴스를 보면 너무 정쟁 일변도다.정기국회는 철저한 민생국회 정책국회로 끌고 가야 한다.정쟁국회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나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등으로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일방 강행처리를 협박하고 있다.다수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이 모든 것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동원돼서 벌어지는 일이다.이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오로지 이 대표를 입법권력으로 지켜보겠다고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이 대표 수사 대응 차원으로 보나.“이 대표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지극히 사법적인 영역이다.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게 대한민국의 지엄한 법이다.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갔나?엄연히 사법에서 다뤄질 일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협치의 물꼬를 틀 방법은.“엊그저께(1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온 이후에 국회와 대화를 할 계획이 있는 것 같다.그런 게재에 허심탄회하게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자리가 있길 바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당내 계파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저는 그동안 계파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과거 친이·친박으로 분류됐던 사람도 아니다.그래서 지금 당의 비상상황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도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이번 비대위 구성도 나름 지역안배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다.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구성을 했다.비대위 초반 나름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파는 어떤 정당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민주당에도 이재명계, 문재인계가 있는 거고, 심지어 ‘개딸’도 있지 않나.(웃음)(친윤이라는 건) 윤 대통령의 ‘이너서클’이라는 건데 이것도 어느 나라든지 다 존재하는 것이다.그 안에 속한 사람이 호가호위 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에 돼야 한다.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왜 문제가 되나.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그래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공론장에 쓰는 저널리즘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다분히 조롱조의 분열적 의미가 덧씌워져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광재·안희정을 ‘노핵관’이라고 불렀나.왜 우리 스스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프레임과 ‘네이밍’을 만들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전당대회 시점에 관한 문제는 우리 비대위의 우선순위 과제가 될 수 없다.우리 당으로선 지금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전당대회 스케줄이 제시되는 시점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이 일이 불거지게 된 것은 어쨌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교사혐의였다.그리고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중징계를 당한 이 대표가 징계 기간 동안 근신하지 않고 당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 아닌가.다섯 차례에 걸친 가처분 소송을 연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한손으로는 당원모집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당을 흔드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원들과 국민들의 피로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물이 될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윤리위에 이 전 대표 추가징계 만류 등을 권고할 생각은.“그것은 당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추가징계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징계를 하라는 식의 주문을 할 도리가 없다.”